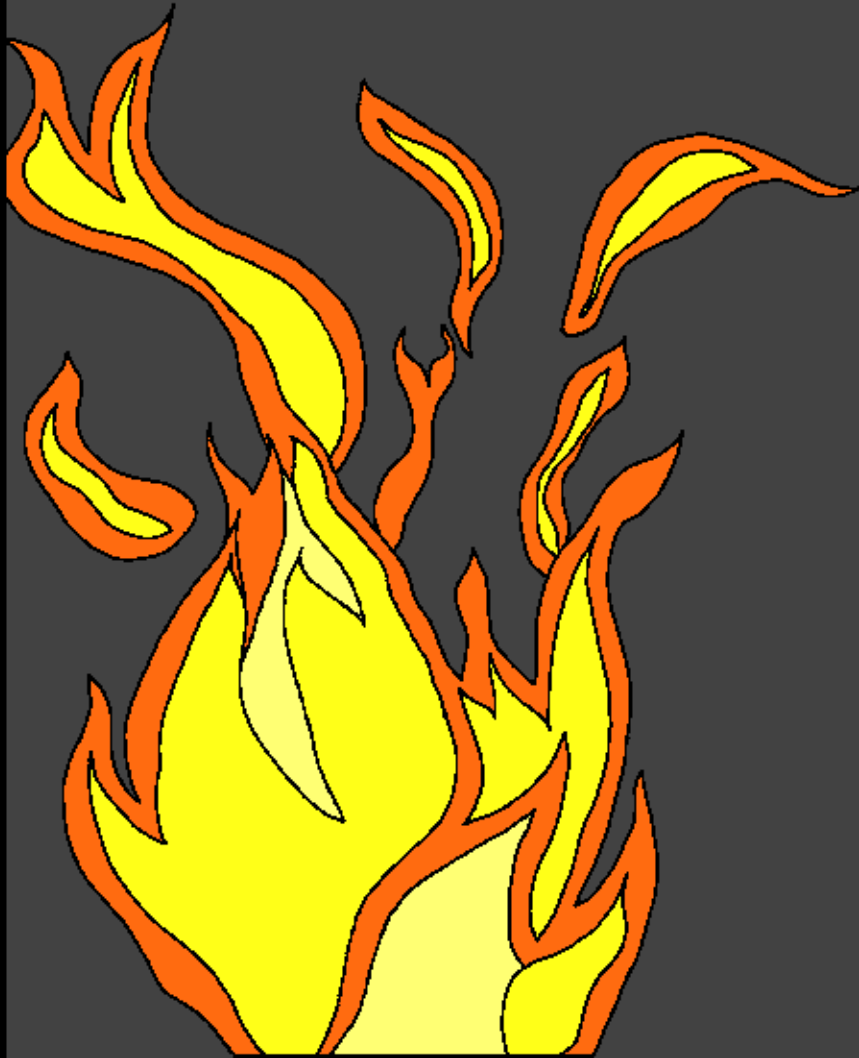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불을 내린
사람



저자: Edward Hughes

삽화: Lazarus; Alastair Paterson

각색: E. Frischbutter

번역: Helen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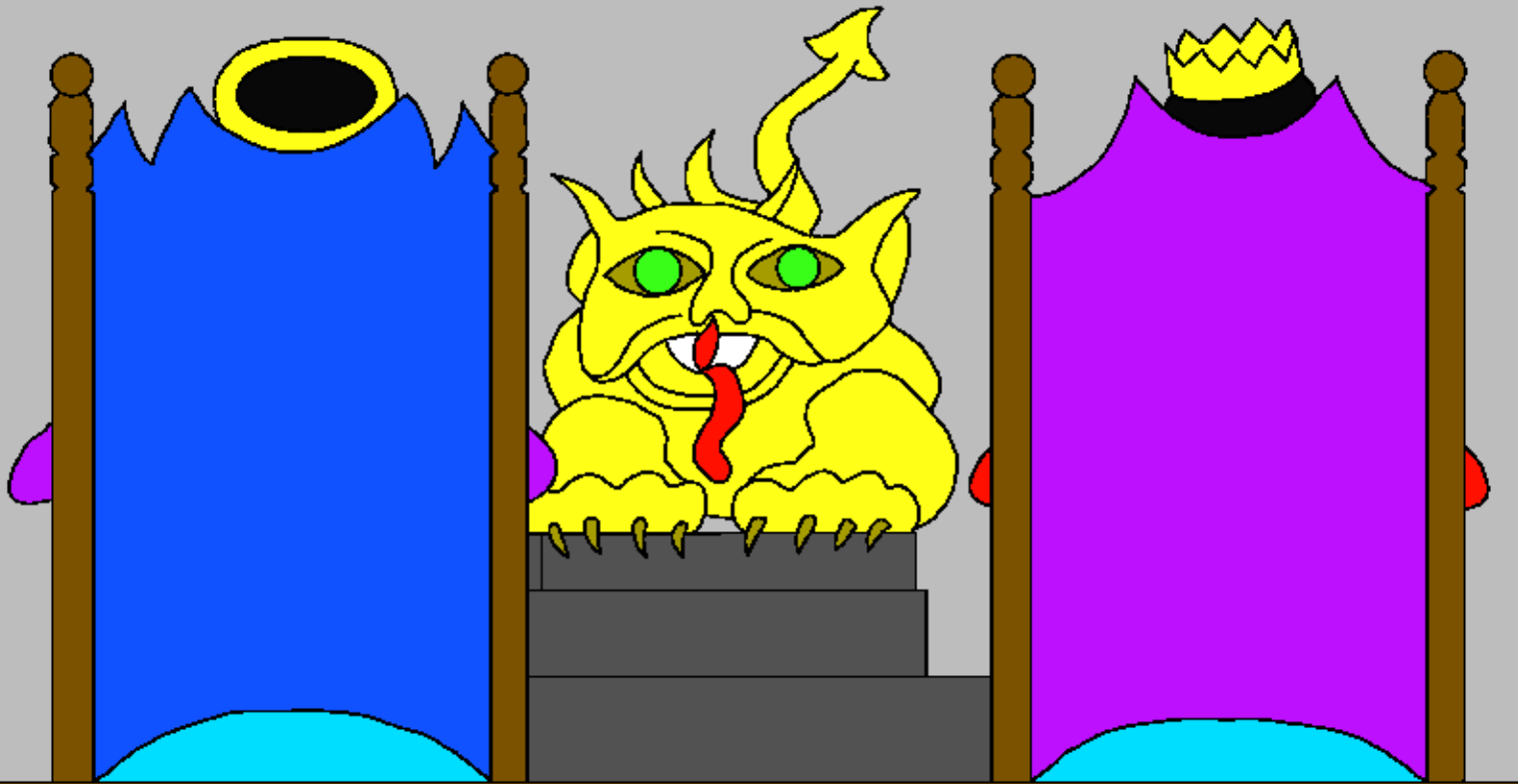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1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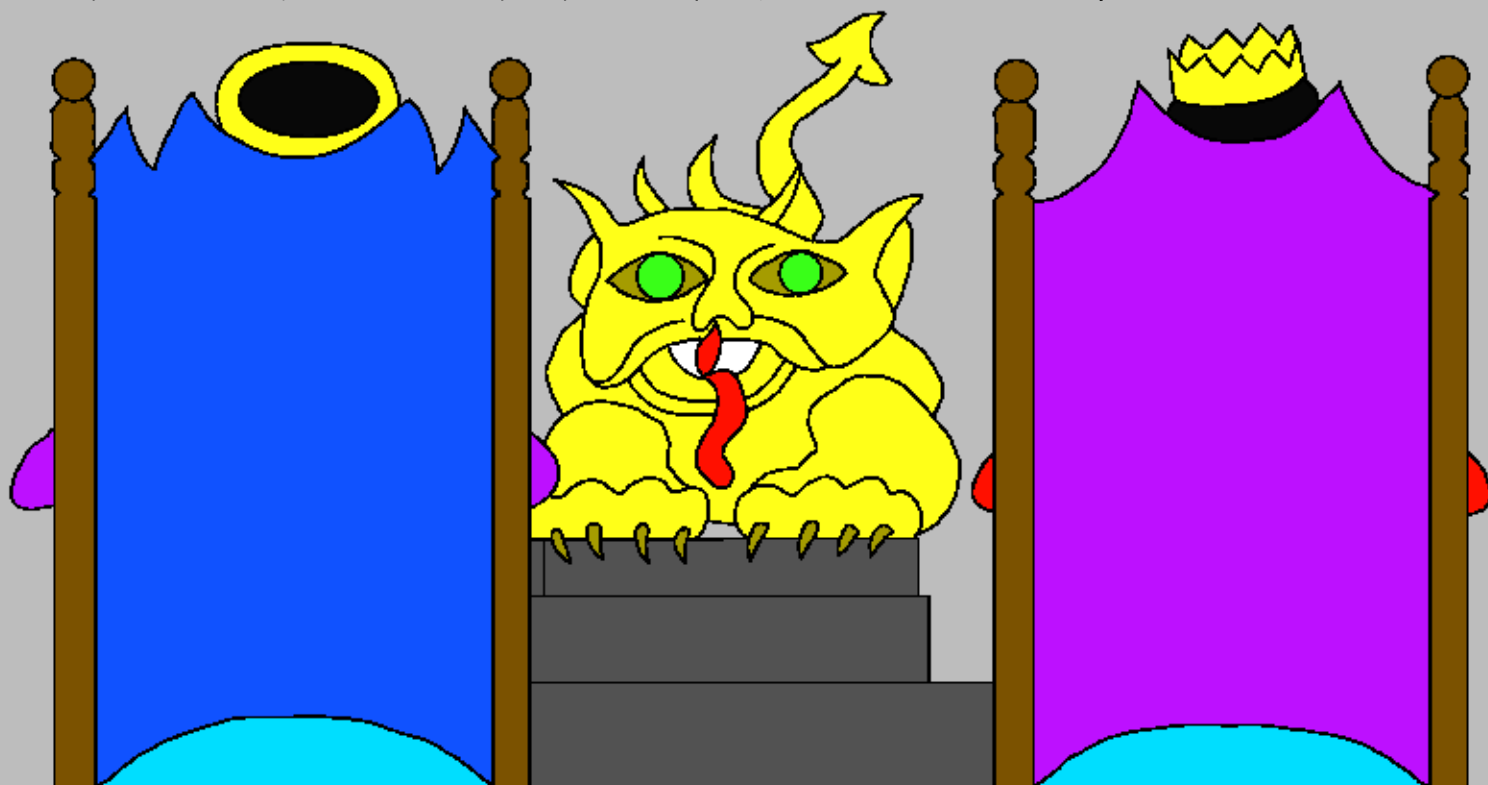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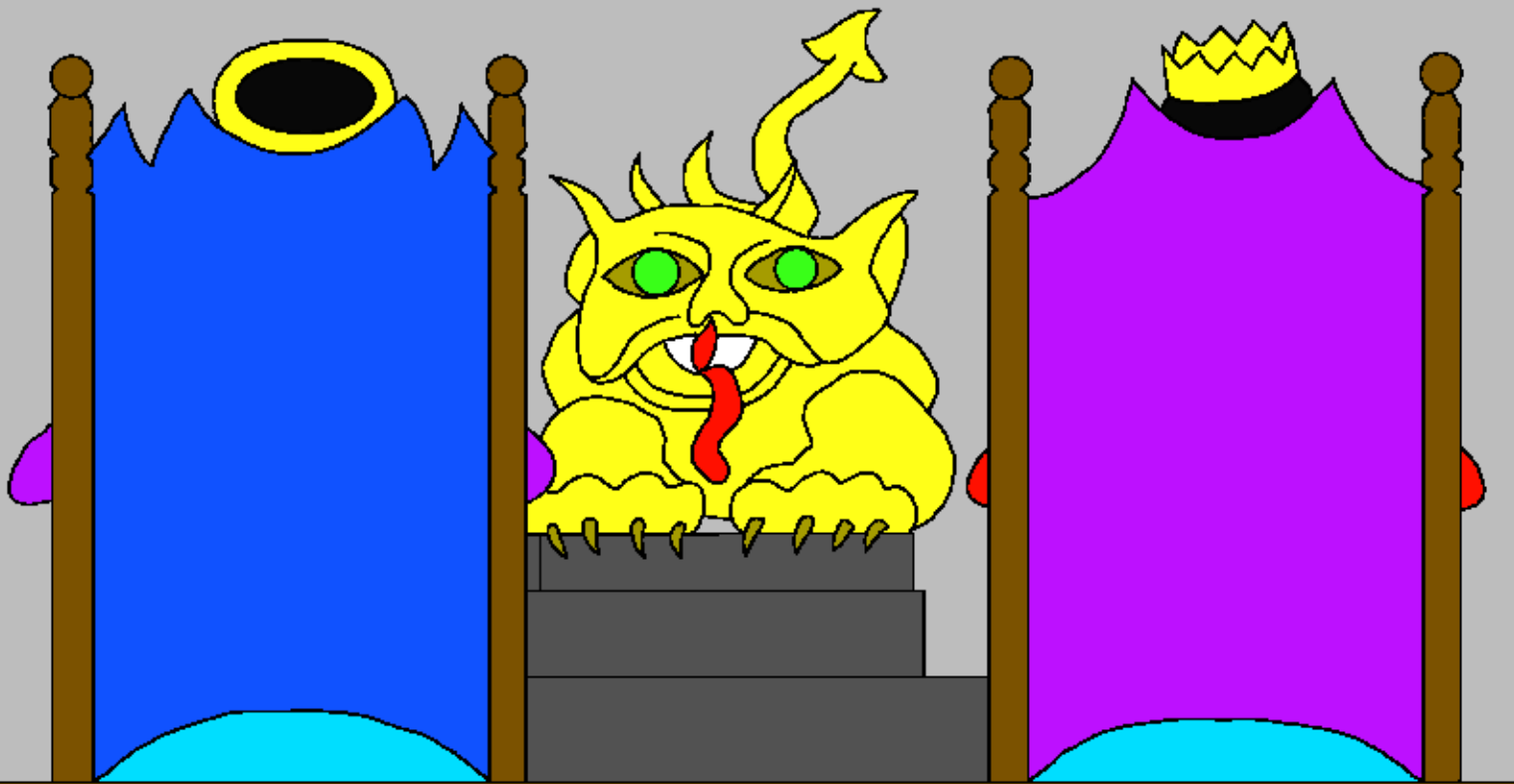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왕과 왕비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점차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지요. 이러
한 상황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몇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그 중 한 사람인 엘리야와 함
께 하셨어요.



엘레야는 사악한
아합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



...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엘리야는
왕에게
경고한
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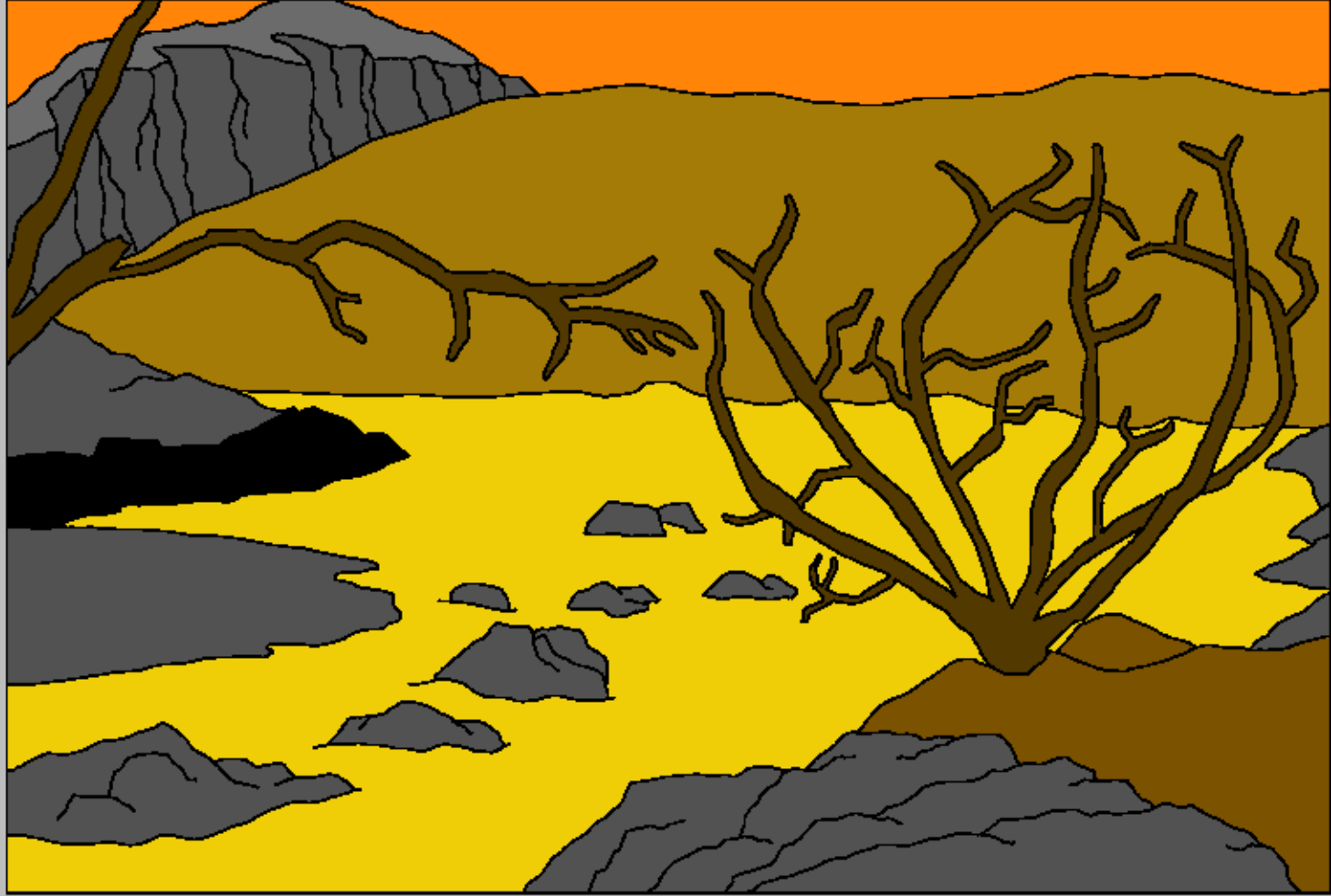
한적한 곳으로 가서 숨어 지냈어요. 그는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지요. 하나님
께서는 까마귀를 시켜 그를 먹였어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물론 물은 그 시냇가에서 마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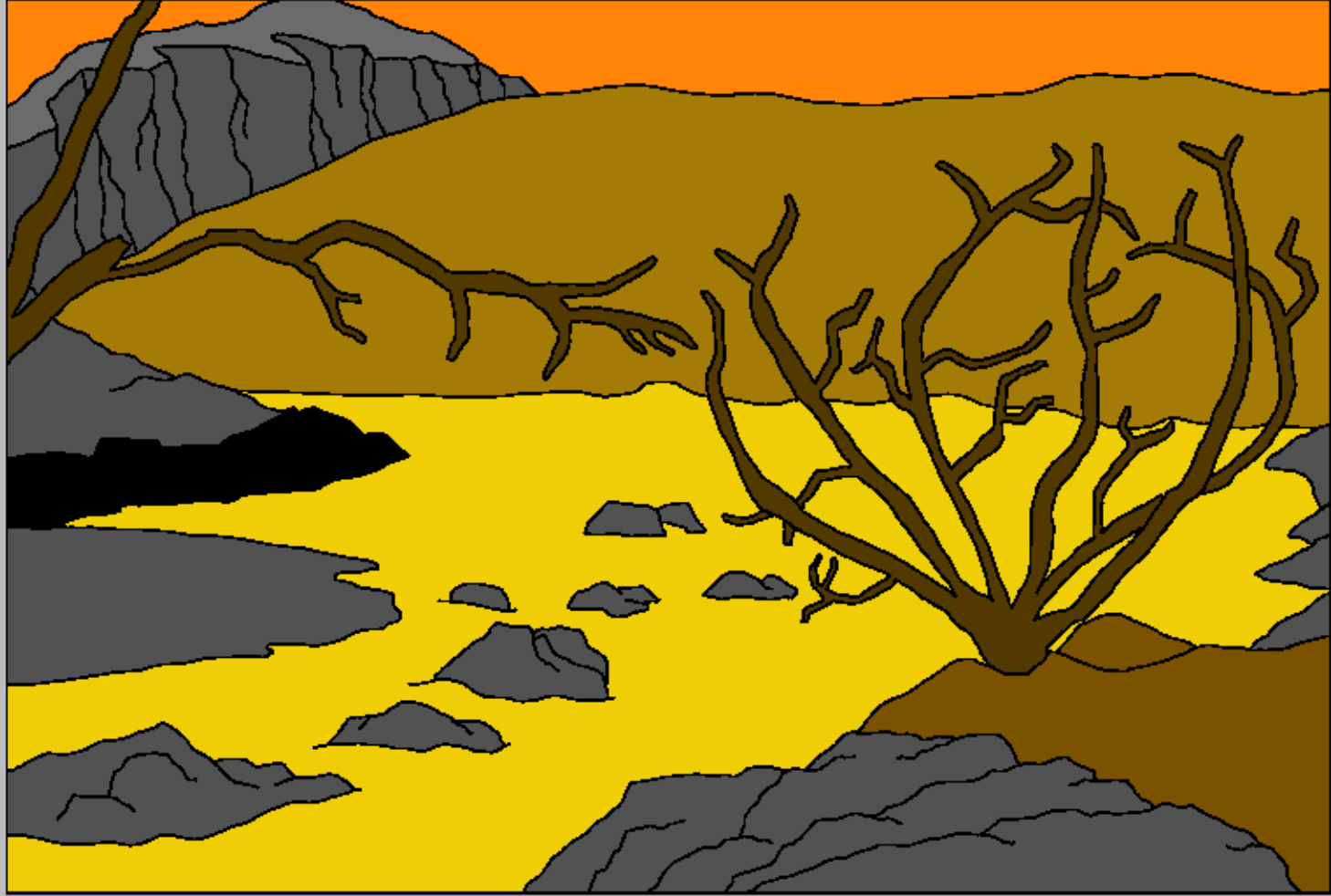




비가 계속 내리지 않자 그
시냇물도 말라 버렸어요.



엘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나라에
가뭄이



들어 곡식도 자랄 수 없고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과연 엘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아시고

그에게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서 거하라. 한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성문에서



땀감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게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다오.”
라고 엘리야가
부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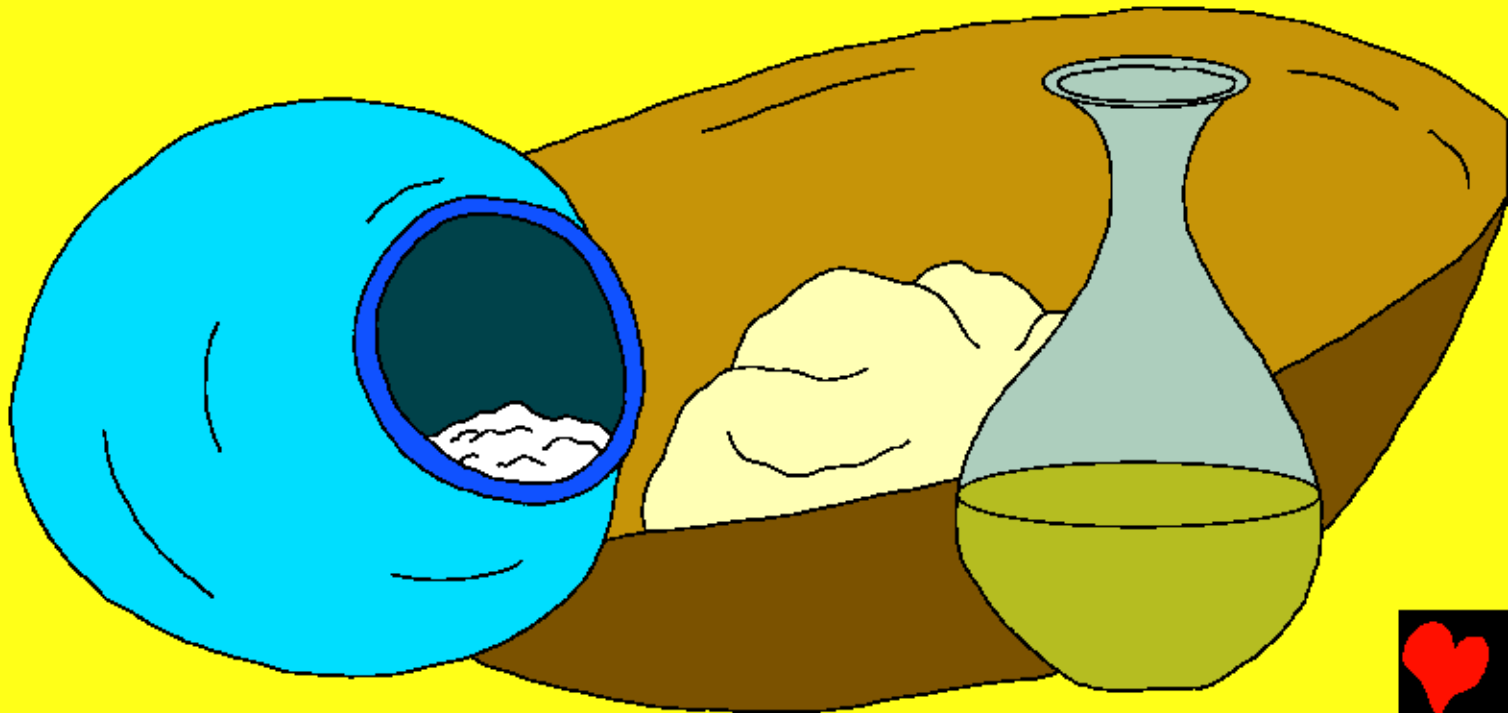
그리나 과부는
“저에게는 한
줌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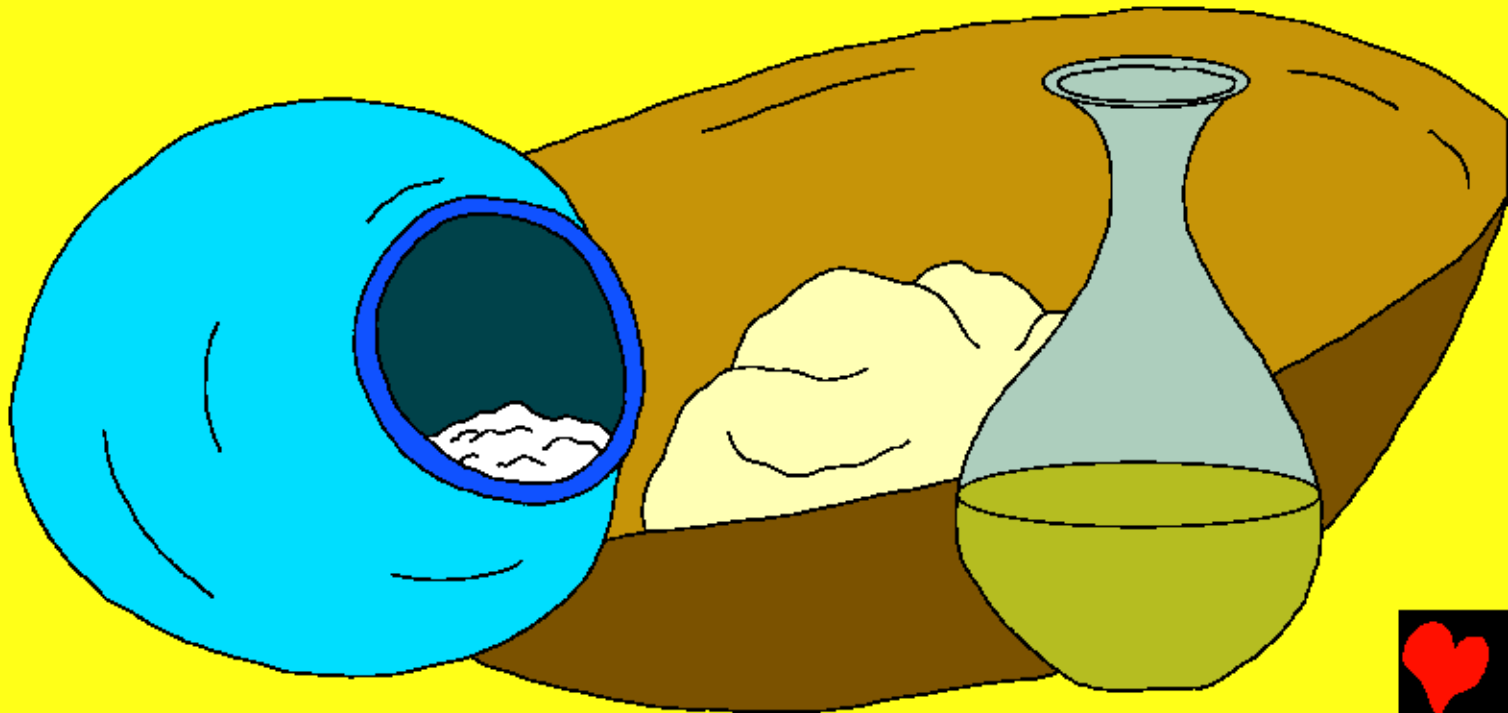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나면 자신과
아들은 굶어 죽게
될 거라며 슬퍼
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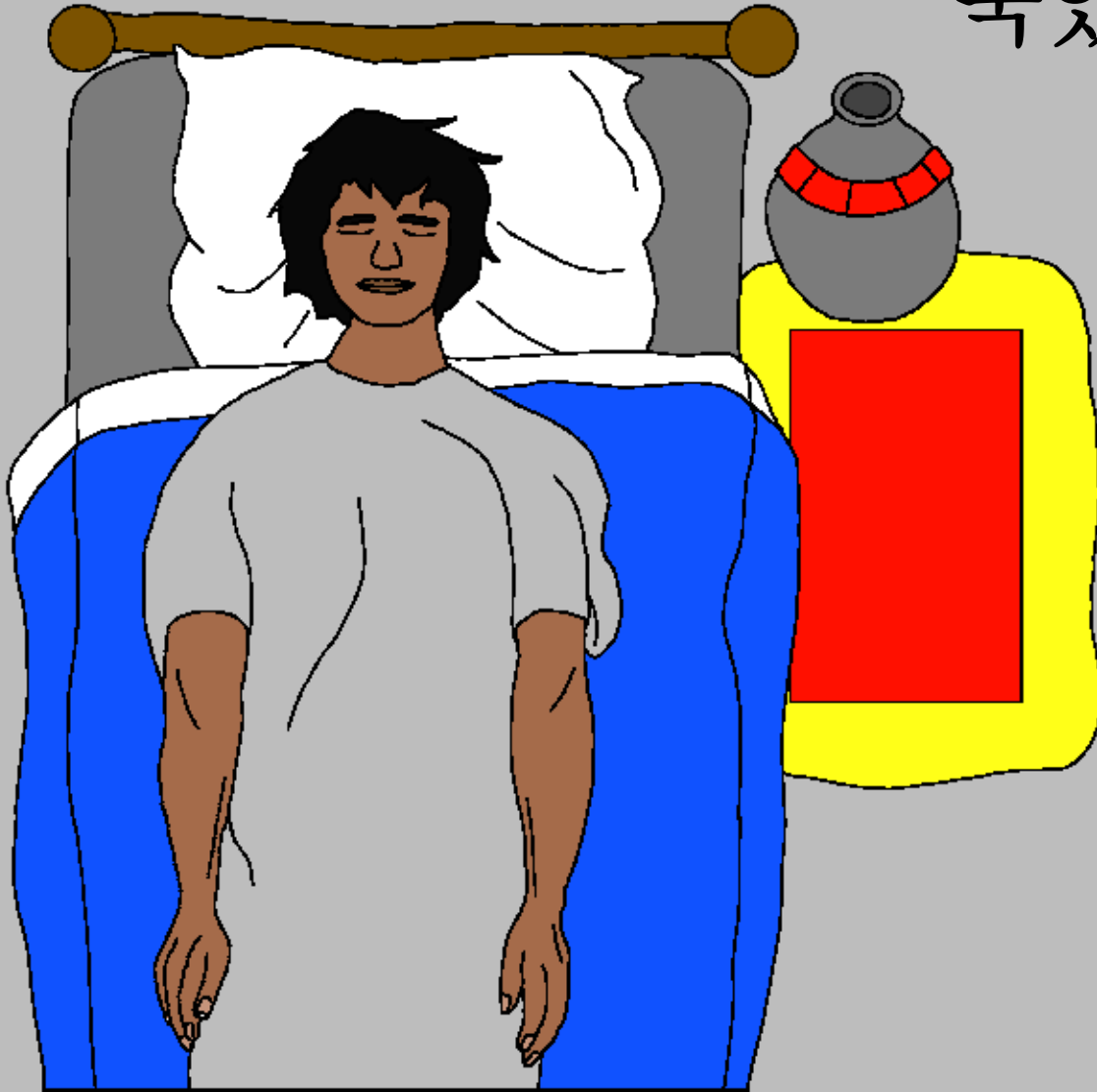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위해 조그만 빵을
만들고 주고 나서 나머지를 먹으시오.
그러면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바닥에
나지 않을 것이오.”



라고 엘리야는 위로의 예언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과부와 그 아들은 여러날을 먹었지만
밀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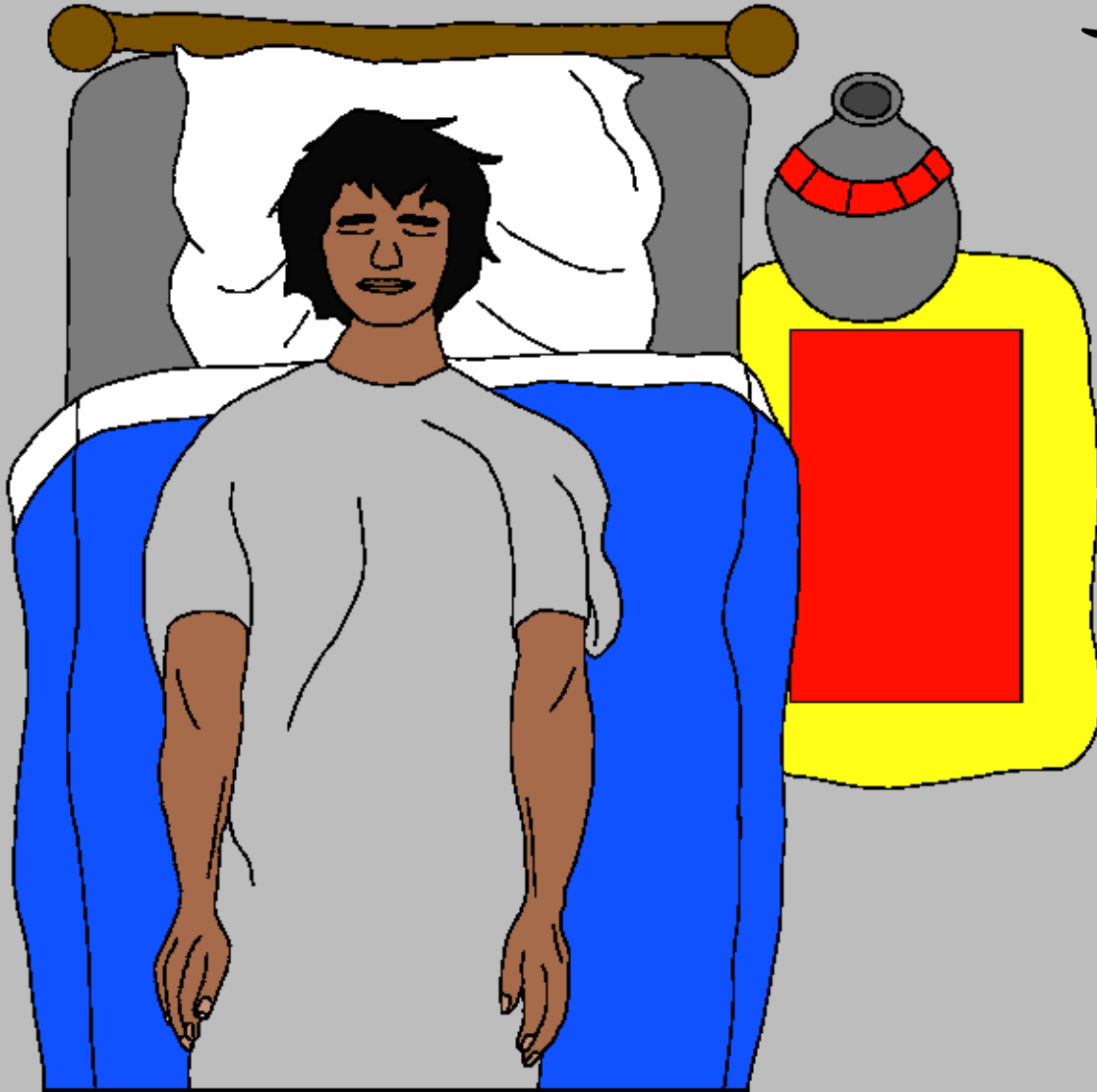


엘리야가 그들과 거하던 어느 날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는 소년의 시체를 위층의 방으로 옮긴 채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년을 살려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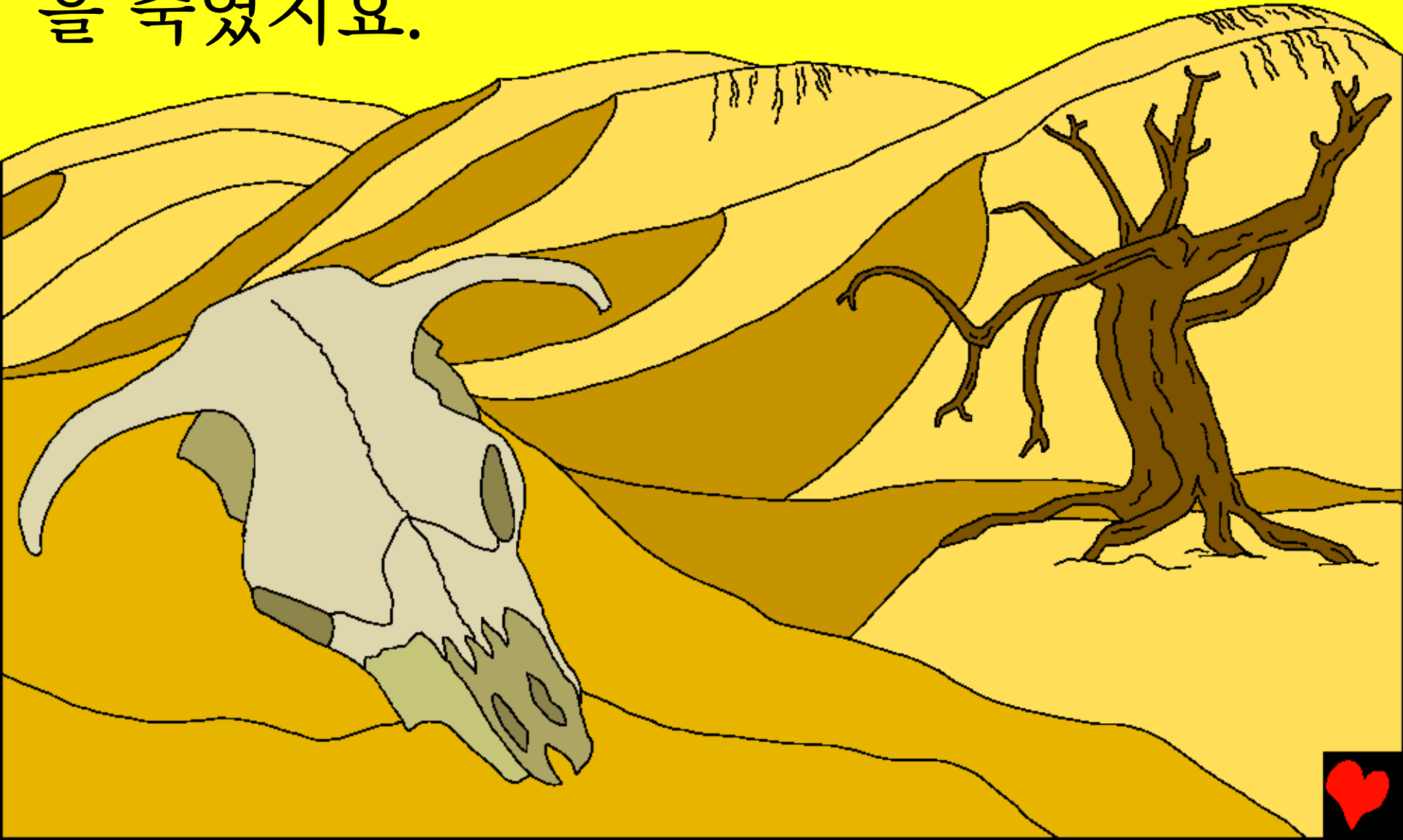
엘리야가 그 아이를 과부에게 돌려주자, 그
녀는 “이제 당신이 참 하나님의 선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삼 년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왕에게
가서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소
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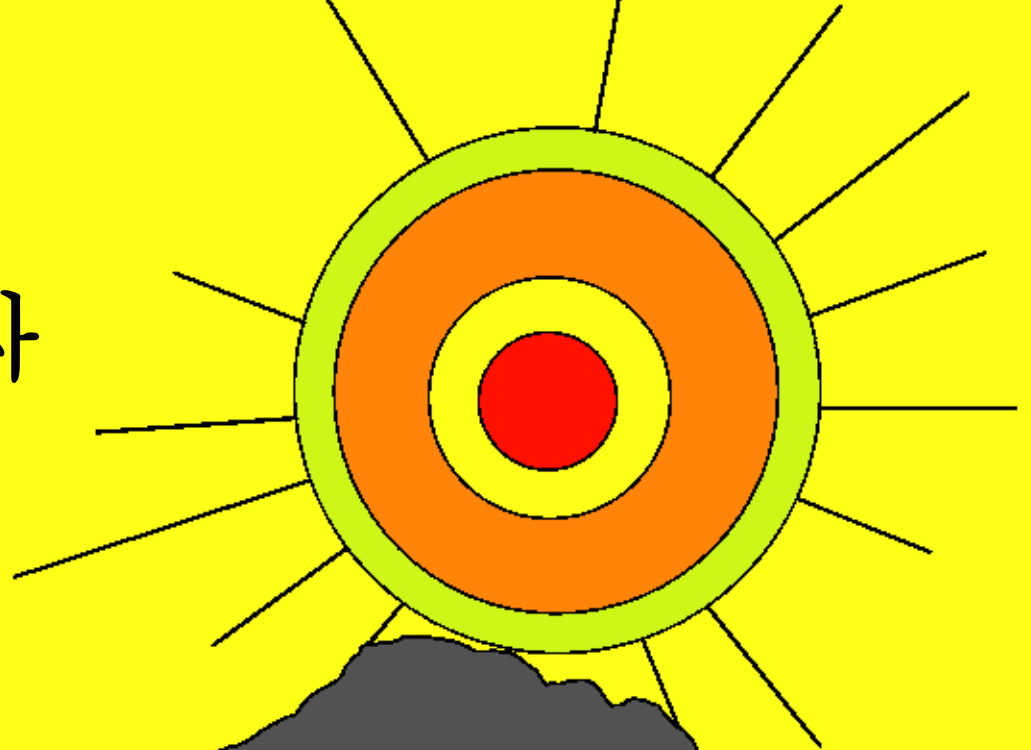
아합 왕에게 간다고요? 그 시기에 왕비 이세벨은 벌써 백 여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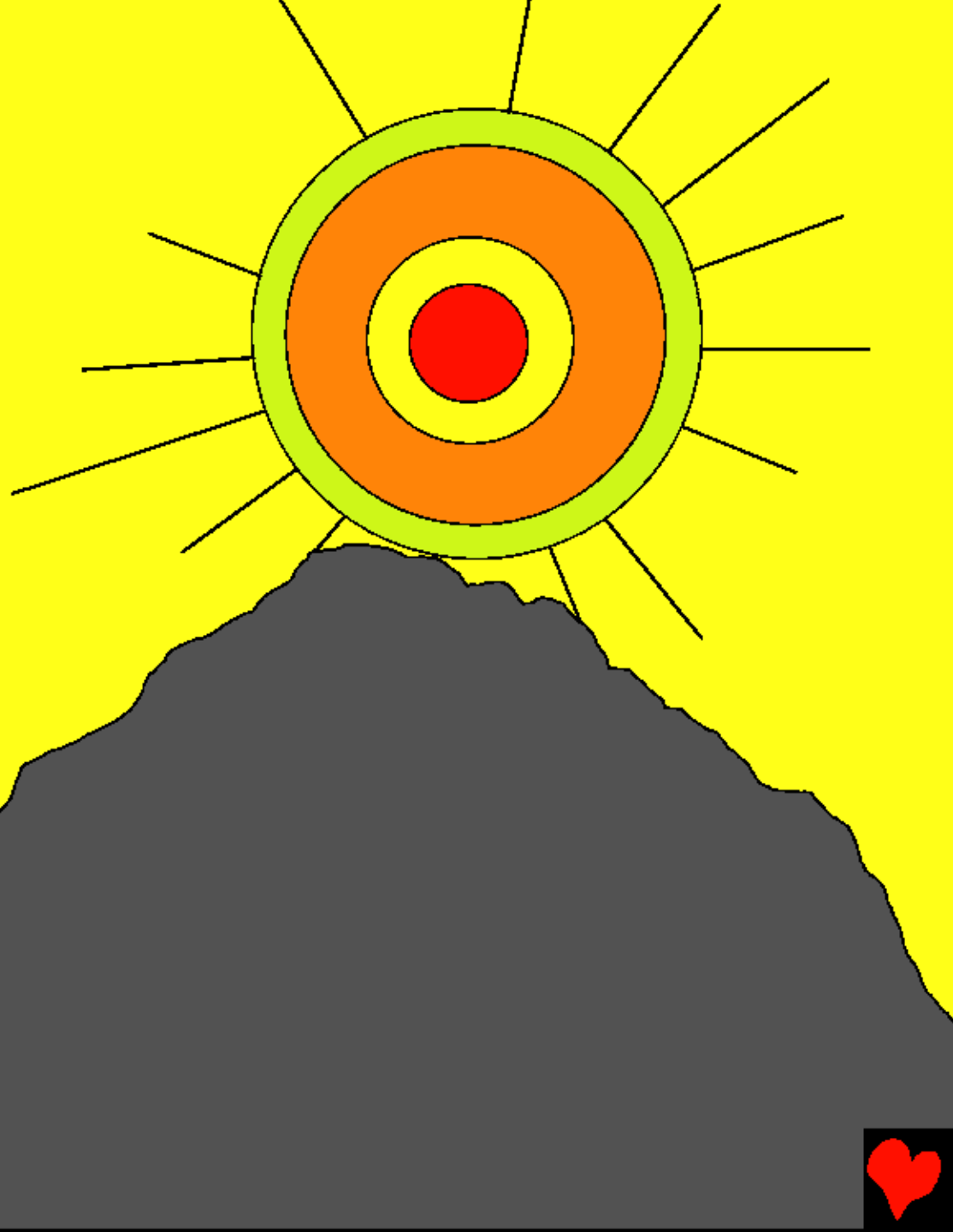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갔어요.



엘리야는 왕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선지자
팔백 오십명을
모이게 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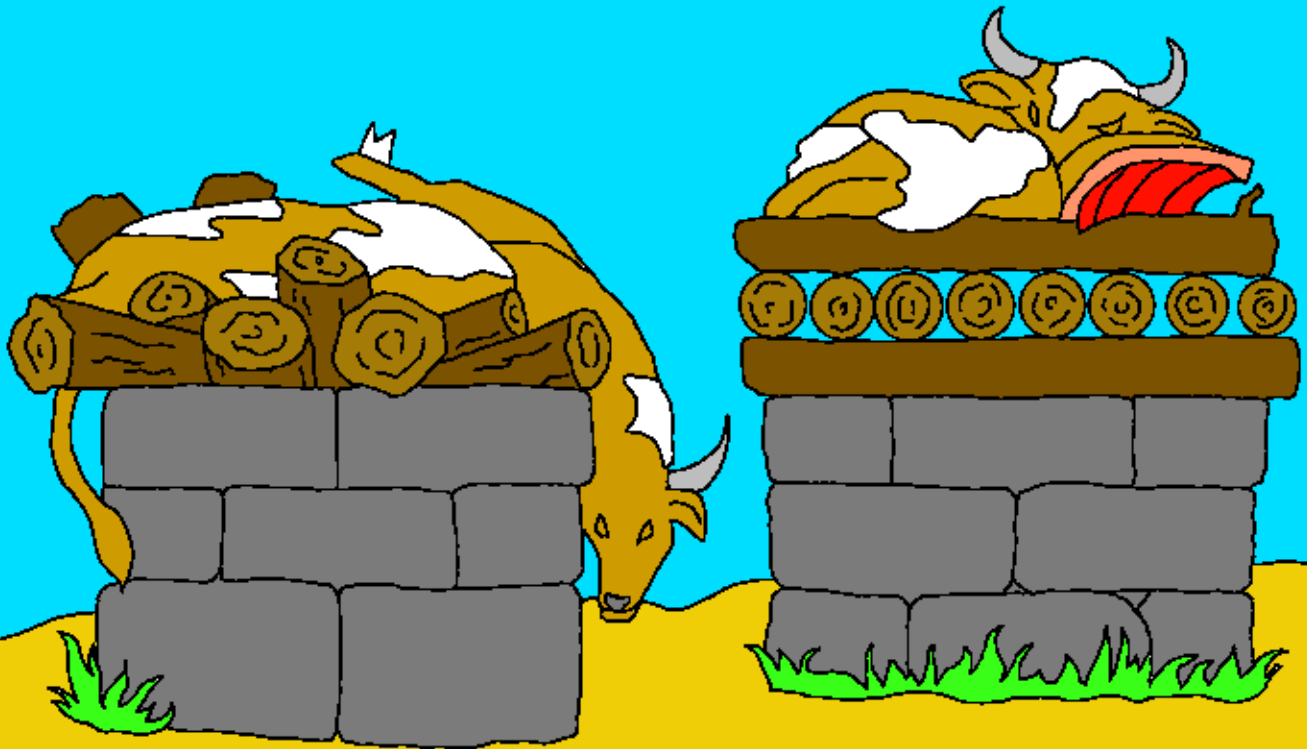
갈멜 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는 소 두마리를 제물로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불을 피울
준비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외치자 백성들이 동의하였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뛰고 춤추며 심지어는 자신들을 칼로 찢러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어요. 그렇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지요.





이제 엘리야는
장작과 제물에
물을 부어
젖게까지 한
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당신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장작과
제물과 돌제단을
모두 태웠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리쳤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붙잡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왕이 벌써 해야 했던
일을 엘리야가 시행해야
했지요.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엘리아는
아합왕에게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과연 비가 내려 삼년이
넘도록 마른 땅을
적시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참
선지자이며
자신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셨지요.



아합 왕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섬길까요? 불행히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지만 그는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세벨은
궁궐 벽에서
떨어져 돌에
부딪혀 죽게
되었지요.





엘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서
불마차와 불말들을 보
내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데려 가셨답니다.



불을 내린 사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19장, 열왕기하 2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